

# 자연지향적 집단의 생태관광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sup>1</sup>

- 수도권지역의 자연지향적 단체를 중심으로 -

유기준<sup>2</sup> · 최인묵<sup>3</sup>

## A Study on Behavioral Characteristics for Ecotourism in Nature-Oriented Groups<sup>1</sup>

- Focus on Nature-Oriented Groups in the Metropolitan  
Area, Korea -

Ki-Joon Yoo<sup>2</sup>, In-Mook Choi<sup>3</sup>

###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자연지향적 집단의 생태관광 행동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의 5개 자연지향적 집단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여행객의 행동특성,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요소들, 그리고 행동특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와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서 행동특성에 대한 요인분석과 독립변수들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절대환경론자 및 정태형 생활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계절과 방문빈도에 민감했으며 조화론자 및 모험형의 사람들은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과 장애요소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의 잠재적인 생태관광 시장의 효과적인 홍보 및 마케팅 전략수립에 기초적인 자료로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료의 이용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생활양식적 차이와 다양성 요구에 의한 심리적 유형의 차이 및 개인의 환경관 등이 행동에 작용하는 범주와 영향의 구체적 원인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향후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요인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 생활양식적 차이, 다양성 요구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for ecotourism in nature-oriented groups. To accomplish the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employed on nature-oriented groups in Seoul area, Korea. This survey was focused on finding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the influential factors to their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verifying the attentive difference between the influential factor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For this, factor analysis and one way ANOVA were used as the statistic analysis tools. As the results, an

1 접수 5월 31일 Received on May 31, 1999

2 탐라대학교 관광학부 School of Tourism Studies, Tamna Univ., Sogwipo 697-340, Korea(kijoon@unitel.co.kr)

3 세종대학교 대학원 Graduate School, Sejong Univ., Seoul 143-747, Korea(imook@yahoo.com)

deep-ecologist and quiet traveler were more sensitive to the season and visiting frequency. And accommodators and adventurous people were more sensitive to the influential factors toward their motivation and the barrier factors. Thu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can be provided as a basic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effective PR and marketing strategies for potential ecotourism market in Korea. In addition, finding out the scope and specific acting causes on the behavior by the differences of psychological type, individual environment view, and others due to a living mode difference and a variety can be suggested as future study issues.

**KEY WORDS : FACTOR ANALYSIS, ONE WAY ANOVA, LIVING MOOD & NBSP; DIFFERENCES, VARIETY**

## 서론

그 동안 관광은 “무공해 산업” 또는 “청정산업”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환경과 관광과의 관계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되어 관광개발은 곧 환경훼손이라는 등식이 일반에 팽배되고 있다. 자연환경이 최대의 상품가치인 관광에 있어서 기존의 대규모 관광개발은 환경 보전에 대한 긍정적 역할보다는 환경의 파괴와 훼손에 일부 기여했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관광개발은 체계적이고 적절한 계획에 의한 개발보다는 경제적 논리가 우선 강조되어 이에 대한 반대급부 환경의 악화, 문화적 독특성 상실, 식생과 야생동물의 서식지 훼손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유발시켜 왔다(박종구, 1994).

이와 같은 관광과 환경의 영향관계의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서 현재 자연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개발형태인 지속 가능한 개발, 보전적 개발 등의 개발방식이 관광개발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실제로 환경과 관광의 복합적인 관계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학계 및 일반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환경과 관광을 접목시킨 생태관광(ecotourism)이 소개되면서 자연환경 위주의 관광목적지를 대상으로 새로운 가능성으로 제시되고 있다.

생태관광은 1965년 Hetzer에 의해서 주창된 이래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되어 왔으며(Grenier *et al.*, 1993), 생태관광에 대한 정의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Fennell과 Eagles(1990)는 생태관광은 자연에 기반을 둔 여행이며, 생태관광객들은 자연에 기반을 둔 관광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Eagles(1992)는 생태관광을 자연지향적 경험(nature-oriented experiences)이라는 개념하에 생태관광의 동기요인은 환경적, 문화적 특징 등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

하였다.

Western(1993)은 생태관광은 자연에 대한 갈망의 창출과 충족에, 보전과 개발에의 관광의 잠재력 견제에, 더 나아가 생태, 문화, 기타 심미적 요소에의 관광의 부정적 영향의 전환에 관계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자연관광과 관련된 기회와 위험요소를 지적하면서 생태관광의 임무와 범위에 대한 정확한 정의의 수립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생태관광 참여자들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다. Butler와 Hvenegaard(1988)는 생태관광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연구하였는데, 생태관광객들은 일반관광객보다는 수입이 많은 고소득층이 대부분이었으며, 또한 높은 교육수준을 받은 중산층이 대부분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연령층에 대한 연구에서는 생태관광객들은 중년층으로 Butler와 Hvenegaard(1988)의 연구에서 나타난 관찰자의 평균 연령은 49세였으며 Wilson(1987)의 갈라파고스 국립공원 연구에서도 방문객 평균연령은 42세로 나타난 바 있다.

Kretchman과 Eagles(1990)는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생태관광객들은 자연에 대해 배우기를 원하고, 유사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기를 원했으며, 외부 기술의 습득과 이용가능한 시간에 많은 관찰을 원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Crossley와 Lee(1994)는 생태관광과 대량관광과의 이익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혼잡하지 않고 잘 보전된 자연 그리고 야생에 대한 지식의 증가와 지역주민과의 상호교류 및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증대와 동·식물과의 신뢰증진을 생태관광의 편익으로 말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아직 생태관광에 대한 연구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생태관광의 필요성은 각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도 최근 들어 많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초기연구로서 정숙희(1993)의 “한국 생태관광상품개발에 관

## 조사 및 분석방법

한 연구"와 야은숙(1993)의 "민통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1995년 정경임의 "생태관광개발에 관한 연구"에서는 환경오염의 인지도와 생태관광 인지도에 상관관계를 밝힌 바가 있다.

최근의 연구로서 전국의 주요 5개도시(서울, 대전, 광주, 대구, 원주)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생태관광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가 수행되었다(김용근, 1998). 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젊을수록 생태관광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태관광의 경제적 편익 추정에 관한 연구가 충북 영동군 민주지산을 대상으로 수행된 바 있으며(이충기 등, 1998), 유기준 등(1998a; 1998b)은 전남 완도군 정도리와 경남 창녕군 우포를 대상으로 농어촌지역 생태관광지 조성 계획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태관광이 보편화된 관광형태로서 자리를 잡지 못하여 생태관광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실제 생태관광자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지 않아 외국의 생태관광자 유형과 비교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결과를 고찰해 볼 때, 생태관광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정도는 아직 낮은 편으로 아직 생태관광개념이 일반인에게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생태관광 개발방식에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생태관광이 향후 우리나라에서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의 한 형태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경향을 살펴 볼 때, 관광지의 개발과 환경보존 문제는 자원의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보존과 양질의 관광경험을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개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생태관광은 이러한 지속 가능한 개발개념 추구를 위한 접근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생태관광지의 개발 및 여행상품개발 등을 통한 생태관광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생태관광지의 개발 및 여행상품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태관광객과 생태관광활동에 참여할 의사와 가능성을 가진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양식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잠재고객인 생태관광객의 행태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으로부터 계획되었으며, 자연지향적 집단의 생태관광 행동특성을 연구하여 생태관광상품의 개발을 위한 마케팅 측면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의견 주도자로서 생태관광을 직접 체험했고 단체활동을 위한 계획을 담당하는 교육자 및 환경단체의 간사직급 이상인 수도권지역(서울) 5개 자연지향적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는 생태관광상품의 개발을 위한 여행객의 행동특성과 관련된 사항을 통하여 심리적, 생활양식적, 환경에 대한 가치관, 여행유형 등이 이들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종속변수인 행동특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와의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행동특성에 대한 요인 분석(Factor Analysis) 후 독립변수들과의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 1. 연구모형 및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근거로 하여 Figure 1에서와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고, 환경전문가 집단의 환경관과 다양성 요구수준, 여행유형, 생활양식에 따른 행동특성상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국내 생태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지향적 집단의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제시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H1> 자연지향적 집단의 환경관은 생태관광 행동특성과 차이가 있다.
- <H2> 자연지향적 집단의 생활양식은 생태관광 행동특성과 차이가 있다.
- <H3> 자연지향적 집단의 여행유형은 생태관광 행동특성과 차이가 있다.
- <H4> 자연지향적 집단의 다양성 요구수준은 생태관광 행동특성과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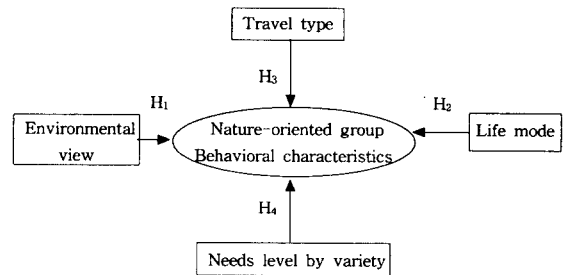


Figure 1. Behavioral characteristics model for nature-oriented groups

## 2. 표본의 설계 및 자료수집

### (1) 표본개요

본 연구의 표본추출방법으로는 확률표본추출법 중에서 집락추출방법(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였으며 5개 단체(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서울여자대학교 부설 생태학교, 불교환경교육원, 기독교환경운동연합)에 대하여 설문지 115부를 회수하여 답변이 부실한 6부(5.2%)를 폐기하고 109부(94.8%)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 (1) 환경관

이병욱(1997)이 "환경과 경영"에서 제시한 현대적 환경관을 바탕으로 환경관을 기술중시주의(techno-centrism)와 생태중시주의(eco-centrism)를 기초로 하여 기술중시주의의 낙관론자(optimist) 및 조화론자(accommodator)와 생태중시주의의 환경보호론자(commonalist) 및 절대환경론자(deep-ecologist)의 4가지 개념으로 구분하고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자연지향적 전문가 집단의 환경관 측정은 개인적 이념추종 여부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 (2) 여행유형

Cohen과 Erik(1974)이 여행환경의 지적욕구 단계에 따라 구분한 모험형(adventure), 관심형(respect), 신중형(deliberateness), 회의형(skepticism), 전통형(tradition)의 5가지 유형을 명목척도로 측정하였다.

### (3) 다양성 요구

다양성 요구는 Kolin과 Price 그리고 Zoob(1964)이 사용한 Development of a Sensation-Seeking Scale 중 한국실정에 적합한 21개 문항을 선정하여 전 문항에 대한 선호도의 합산점수를 통해 모험형과 전통형으로 구분 측정하였다. 분석의 편의상 5가지 유형 중 양극단의 두 유형을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 (4) 생활양식

생활양식은 Wells(1972)의 정태형(peace & quiet traveler)과 해외형(overseas traveler)을 본 연구에 적용하여 생활양식의 특징과 관련하여 질문된 10가지 문항 중 선택문항의 합산을 통하

여 구분하였으며 생활양식접근법에 따른 여행자 유형의 행동양식을 반영토록 하였다.

## 결과 및 고찰

###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조사된 표본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67.0%로 남성의 26.6%보다 2.5배 이상에 가까웠으며 결혼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미혼이 71.6%, 연령은 21~30세가 67%, 학력은 대학재학 이상이 88%, 한 달 여가 지출비 규모는 40%가 6만~10만으로 조사되었다.

### 2. 환경전문가 집단의 유형분석

환경관은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조화를 추구하는 조화론자(accommodator)가 38.5%, 개발을 위한 자연환경의 파괴를 경계하는 환경보호론자(commonalist)가 36.7% 자연생태계의 절대적 보존을 강조하는 절대환경론자(deep-ecologist)가 24.8%로 조사되었다. 여행유형별 분석에 의하면 체재형이 58.7%, 경유형이 38.5%로서 체재형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재기간은 1박 2일이 37.3%, 3박 4일이 21.8%, 2박 3일이 17.3%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양성 요구수준에 대한 분석결과는 모험형(adventure)보다는 전체적으로 전통형(tradition)으로 왜도가 치우친 분포곡선을 보여 주고 있으며 신중형(deliberateness)과 전통형의 중간인 회의형(skepticism)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2). 생활양식에 있어서는 해외형이 56.9%로 정태형(22.9%)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해외형 여행자는 보다 활동적이고 외향적이며 자신감이 있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며, 대체로 장거리 여행에 관심이 많고, 문화적 경험에 더 큰 흥미를 보이는 경향을 보인다.

### 3. 행동특성 분석

생태관광의 필요성 인식에 대한 설문에서는 99.1%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여행빈도는 1년에 2~3회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그 이상이 33.6%, 1달 2~3회도 16.4%로 나타나 자연지향적 집단의 여행 빈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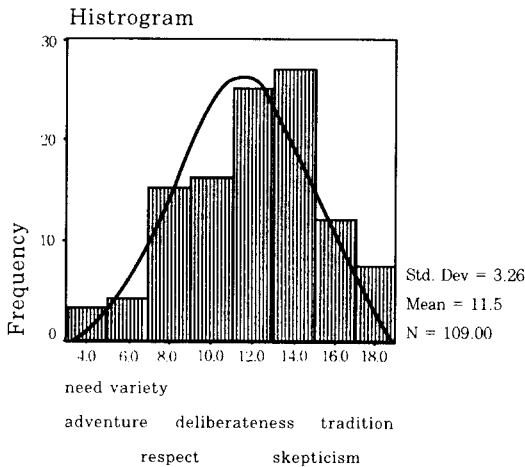


Figure 2. Model for needs variety

사되었다.

여행목적은 휴식이 3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습 및 탐구활동 36.4%였으며 친교목적과 기타가 각각 5.5%를 보여 대부분 응답자의 여행 목적은 휴식과 학습 및 탐구활동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행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62.7%), 주된 이용교통수단으로서 자가용(40%)과 버스(40%)를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동반형태는 단체가 30%, 친구와 함께 27.3%, 개인 11.8%, 가족과 직장동료가 각각 8.2%를 보여 대부분 단체 및 친구를 동반하는 여행성향을 보였다.

생태여행을 위한 선호계절로서 여름이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14.5%는 계절에 관계없이 생태여행을 즐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태여행의 실행에 따른 장애요소는 시간적 제약(34.5%), 정보부족(19.1%), 경제적 제약(15.5%), 교통문제(8.2%), 기후적 요인(5.5%), 경험부족(5.5%), 거리상의 제약(2.7%) 순으로 제시되었다. 생태여행에 대한 동기부여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개인의 취향(47.3%) 및 소속 집단의 활동(20%)에 의해 강하게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관광에 있어 가장 선호하는 이미지는 수려한 자연경관이 46.4%, 미지의 탐험이 16.4%, 향토적 문화가 11.8%로 나타나 자연경관의 이미지가 생태관광의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생태여행 중 지불한 총비용은 2만~5만원이 40%, 6만~10만원이 20%, 5천원~1만원이 10.9%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지출비용은 일반 관광지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요인분석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법(PCA)에 의하여 Varimax 회전 후 아이겐값(eigen value)이 1 이상으로서 의사결정 요인, 참여수준 요인, 경제적 요인, 접근 요인, 동반 요인의 5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최소 적재값은 .50으로 하였고 추출된 요인별 설명분산의 누적계수는 76.4%로 분석되었으며, 설문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가르키는 Cronbach's  $\alpha$ 값은 0.62로 측정되었다.

#### 5. 가설검증

자연지향적 집단의 환경관과 생활양식, 여행 유형, 다양성 요구수준이 생태관광의 행동특성을 대표하는 5개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다.

##### (1) 가설 1의 검증

<H1> 자연지향적 집단의 환경관은 생태관광 행동 특성과 차이가 있다.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의수준 95%에서 2개의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 요인(decision making)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조화론자(accommodator)일수록 의사결정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수준'(participation level)에 대해서도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절대환경론자(deep-ecologist)일수록 참여수준을 나타내는 빈도와 계절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연지향적 집단의 환경관은 생태관광 행동 요인 중 의사결정 요인과 참여수준 요인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 (2) 가설 2의 검증

<H2> 자연지향적 집단의 생활양식은 생태관광 행동특성과 차이가 있다.

Table 1. Factor analysis for importance toward behavio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Factor	1	2	3	4	5	Extraction
		Decision making	Participation level	Economic condition	Accessibility	Accompany	
Influential things into motivation		.843					.814
Decision maker for visiting		.767					.635
Barrier things		.626					.523
Visiting frequency			.829				.731
Visiting season			.795				.806
Travel expenses				.529			.833
Length of stay for travel				.893			.914
Use type of transportation					.854		.841
Visiting purpose					.622		.723
Visiting types of group						.822	.851
Visiting day						.676	.764
Mean		3.4350	3.2467	1.2310	2.6734	4.4200	
Std. Deviation		2.6703	1.1492	1.0822	.9556	1.5476	
Eigenvalue		1.6908	1.3192	1.0772	1.1162	1.1325	
% of variance		24.1	15.3	13.6	12.3	11.1	
Cumulative		24.1	39.4	53.1	65.3	76.4	

Table 2. Differences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toward environmental view

Factor	Accommodator	Commonalist	Deep-ecologist	F	Sig.
1: Decision making	0.86	-0.58	-0.19	22.162	.000
2: Participation level	-0.31	-0.24	0.59	7.293	.001
3: Economic condition	-0.04	-0.07	0.13	.332	.718
4: Accessibility	-0.28	0.02	0.28	1.993	.144
5: Accompany	0.36	-0.10	-0.24	2.530	.087

Table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95%에서 1개의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참여수준' 요인인 빈도와 계절은 생활양식이 정태형(quiet traveler)에 속하는 사람일수록 참여수준 요인에 영향을 높게 받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3) 가설 3의 검증

<H3> 자연지향적 집단의 여행유형은 생태관광 행동특성과 차이가 있다.

Table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행유형과 생태관광 행동특성은 유의수준 95%에서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여 주고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여행유형인 경유형(sightseers)과 체재형(vacationer)의 차이는 생태관광 행동특성 요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4) 가설 4의 검증

<H4> 자연지향적 집단의 다양성 요구수준은 생태관광 행동특성과 차이가 있다.

Table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유의수준 95%에서 다양성 요구수준에 따라 행동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다양성 요구수준에 따른 5가지 유형의 분류를 통해서 행동특

Table 3. Differences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toward life mode

Factor	Quiet traveler	Overseas traveler	F	Sig.
1: Decision making	0.37	-0.13	3.795	.056
2: Participation level	0.49	-0.20	6.987	.010
3: Economic condition	-0.17	0.02	0.526	.471
4: Accessibility	-0.24	0.02	1.490	.227
5: Accompany	0.09	0.09	0.000	.997

Table 4. Differences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toward travel types

Factor	Sightseers	Vacationer	F	Sig.
1: Decision making	0.02	-0.01	0.14	.906
2: Participation level	-0.21	0.13	2.265	.137
3: Economic condition	0.01	-0.08	0.08	.929
4: Accessibility	0.19	-0.12	1.763	.188
5: Accompany	-0.02	0.01	0.026	.873

Table 5. Differences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toward demand level for variety

Factor	Adventure	Respect	Deliberateness	Skepticism	Tradition	F	Sig.
1: Decision making	1.52	0.51	-0.32	-0.19	-0.06	4.763	.002
2: Participation level	0.56	-0.20	0.04	-0.28	0.48	1.716	.156
3: Economic condition	-0.60	0.08	-0.38	0.44	-0.03	2.605	.043
4: Accessibility	-1.03	-0.28	0.43	-0.10	0.05	2.683	.038
5: Accompany	-0.51	0.16	-0.63	0.58	0.05	6.004	.000

성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준 4개 요인을 분석해보면 '의사결정' 요인인 동기부여, 의사결정, 장애 요소는 모험형(adventure)에 가까울수록 높게 고려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요인인 비용과 시간은 회의형(skepticism)에 높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 요인인 교통수단과 방문목적은 신중형(deliberateness) 부류의 집단에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동반' 요인인 방문형태와 출발일은 회의형(skepticism)인 사람들일수록 깊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결론

서울지역의 자연지향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는 가까운 장래에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생태관광객의 행동특성을 4개 차원인 환경관, 생활양식, 다양성 요구수준, 그리고 여행유형에 따른 차이의 검증을 통해 마케팅 전략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이 연구가 수행되기 앞서 국내의 생태관광객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분류가 필요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Lindberg(1991)가 주장한 4가지 생태관광객 분류의 두 번째 유형인 적극적인 생태관광객

들로서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자원 보존에 관심을 가진 특별한 목적의 여행자 유형을 따랐다. 또한 Meric과 Hunt(1998)의 연구에서 나타난 생태관광객의 41.9%가 자연관련 조직에 속해 있다는 해외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교적 생태적 관심도가 높은 국내의 자연지향적 집단을 조사대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검증하고자 했던 가설 4개 중 1개 가설을 기각하고 3개를 채택하였다. 여행유형은 생태관광 행동특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다양성 요구수준, 환경관, 생활양식은 생태관광 행동특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줌으로서 <가설 1>, <가설 2>, <가설 4>가 채택되었다.

본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는 초기도입 단계로 볼 수 있는 생태관광객의 이해를 위해 초기 혁신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지향적 집단의 생태관광 행동특성 파악에 초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자연지향적 집단이 잠재 생태관광객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이들 집단이 향후 일반인들의 생태관광적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의 결과는 잠재 생태관광객의 행동특성을 이해하는 데 일부 기초적인 자료로서의 가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활양식적 차이와 다양성 요구에 의한 심리적 유형의 차이, 개인의 환경관 등이 행동에 작용하는 범주와 영향의 보다 구체적 접근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인용문헌

- 김용근(1998) 생태관광성향에 관한 조사연구. 환경생태학회지 12(2): 156-162.
- 박종구(1994) 생태관광지의 계획모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야은숙(1993) 생태관광 개발에 관한 연구 - 민통선지역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기준, 이경재, 오구균(1998a) 농어촌지역 생태관광지 조성계획 I: 전남 완도군 정도리 지역에서의 사례연구. 환경생태학회지 12(1): 102-114.
- 유기준, 이경재, 오구균(1998b) 농어촌지역 생태관광지 조성계획 II: 경남 창원군 우포 지역에서의 사례연구. 환경생태학회지 12(2): 163-173.
- 이병욱(1997) 환경 경영론. 비봉출판사, 25쪽.
- 이충기, 이주희, 한상열(1998) 생태관광자원의 레크레이션 이용가치 추정: 민주지산을 사례로. 관광학연구21(2): 263-278.
- 정경임(1995) 생태관광개발에 관한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숙희(1993) 한국의 생태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utler, J. R., and G. T. Hvenegaard(1988) The Economic Values of Bird Watching Associated with Point Pelee National Park Canada, and Their Contribution to Adjacent Communities, Unpublished paper,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June, pp. 6-9.
- Crossley, John and Lee Bongkoo(1994) Ecotourists and Mass Tourists: A Difference in 'Benefits Sought'. Travel and Tourism Research Association Proceedings, October, pp. 22-30.
- Cohen and Erik(1974) Who is a Tourist - A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ological Review, Vol. 22, pp.20-24.
- Eagles, P. F. J.(1992) The Travel Motivations of Canadian Ecotourists. JTR 31(3): 64-66.
- Fennel, A. David and Paul, F. Eagles(1990) Ecotourism in Costa Rica: A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Park and Recreation Administration, Vol. 8(1), Spring: 22-34.
- Grenier, D., C. Berit, B. C. Kaae, M. Miller and W. M. Roger(1993) Ecotourism Landscape Architecture and Planning. Landscape & Urban Planning, Vol. 25: 1-16.
- Kolin, E. A., Price, J. and Zoob, L. I.(1964) "Development of a Sensation-Seek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Vol. 28: 477-82.
- Kretchman, J.A., and Paul Eagles(1990) "An Analysis of the Motives of Ecotourists in Comparison to the General Canadian Population." Society and Leisure, 13: 499-508.
- Meric, H. J. and J. Hunt(1998) Ecotourists' Motivation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 case of North Carolina Travelers. JTR, Vol. 36, Spring: 57-61.
- Lindberg, K.(1991) Policies for Maximizing Nature Tourism's Ecological and Economic Benefits. International Conservation Financing Project Working Paper, Washington, DC, World Resources Institute, pp. 1-37.



Western, D.(1993) Defining Ecotourism. Lindberg, K. and D. E. Hawkins(eds.) Ecotourism: A Guide for Planners and Managers, The Ecotourism Society, pp. 7-11.

Wells William D.(1972) Life-Styles in Selection Media for Travel Advertising The Values of Travel Research, Proceeding of the Third Annual

Conference, Salt Lake City: Travel Research Association, pp. 63-74.

Wilson, M. A. (1987) Nature Oriented Tourism in Ecuador: Assessment of Industry Structure and Development Needs. FPEI Working Paper No. 20. Research Triangle Park, NC: Southeast Center for Forest Economics Research, June. pp. 1-37.